

#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침구 문헌적 특징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sup>1</sup>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sup>2</sup>  
金基郁<sup>1, 2 \* \*</sup> · 朴炫局<sup>1, 2</sup>

## A Study about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 『Dong-insuhyeolchimgudogyeong(銅人腧穴鍼灸圖經)』

Kim Ki-wook<sup>1, 2 \* \*</sup> · Park Hyun-guk<sup>1, 2</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the 『Dong-insuhyeolchimgudogyeong(銅人腧穴鍼灸圖經)』 can be summarized into 5 parts such as the following.

1. The Index of Books lists the author of 『Dong-indogyeong』 as ‘Wang-yuil(王惟一)’ in some and ‘Wang-yudeok(王惟德)’ in others. Of these ‘Wang-yudeok’ is the name in the printed book and ‘Yuil(惟一)’ was the name it was changed into in order to make it different from the emperor Jinjong(眞宗) of the Song dynasty. Also, the sequence differs greatly among the original editions and sometimes even conflicts within itself, which makes very likely the possibility that the author of this book is not just one person, and that Wangyuil is just the main editor or screener.

2. The original printed edition of the Song(宋) dynasty has 3 volumes and the Cheonsoeng Seokgak(天聖 石刻) of the Song dynasty also has 3 volumes, but 『Hyeolsudosu(穴腧都數)』, 『Sumyeongdanggyeolsik(修明堂訣式)』, and 『Pichimgugyeol(避鍼灸訣)』 were added to the 3rd volume. Of these three 『Pichimgugyeol(避鍼灸訣)』 explains the 『Chimgupigijido(鍼灸避忌之圖)』 of the 2nd volume in writing, 『Sumyeongdanggyeolsik(修明堂訣式)』 explains the three human drawings from the front, side and lying down views in writing and was used to make bronze figures. 『Hyeolsudosu(穴腧都數)』 was possibly used to draw acupuncture points when making bronze figures.

During the Daejeong(大定) era of the Keum(金) dynasty Jinssi(陳氏) from the Pyeongsuseobang(平水書坊) revised this book and carved it into 5 volumes, and of those the 1st and 2nd volumes have characters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rubbed copy of the stone carvings[石刻 拓本] from the Myeong(明) dynasty, which shows that it was taken from another book and not from the original text. The 3rd volume has added content from the stone carvings about accupuncture and moxibustion contraindication(鍼灸禁忌).

During the Myeong dynasty the 3 volumes of the 『Dong-indogyeong(銅人圖經)』 were carved on wood based on the Jungtong Sukgan(正統 石刻), and there were many reprints with the contents that are almost all the same, but the order of the original edition were not all the same. When analyzed from many angles, the original printed copy was carved after the Jungtong(正統) of the Myung dynasty.

3. The content on transport points[輸血] in 『Dong-indogyeong(銅人圖經)』 comes mostly from books like 『Oedae(外臺)』 『Myeongdang(明堂)』, 『Taepyeongseonghyebang(太平聖惠方)』 『Chimgyeong(鍼經)』, 『Yeongchugyeong(靈樞經)』, Wangbing(王冰)'s annotation of 『Somun(素問)』, 『Cheon-geumyobang(千金要方)』 『Chimgu(鍼灸)』, and does not have much new content added by Wang-yuil(王惟一). However when Wang quotes past documents, little is summarized, some are edited and most do not have their origin indicated(the titles of other books quoted in the book are to give some supplementary explanation or are copied from another book).

4. There are many mistakes Wangyuil made in using documents and doing historical research and they can be seen in two fields. One is that he did not fix the errors of past documents, and the other is that he did not know the sequence of past documents or di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xt.

5. The content Wangyuil newly added can mostly be seen in the few annotations and aneo(按語) under the original 'Geumbu(今附)'('Sinbu(新附)'). In order to see Wang's scholarly ideas and achievements we must rely on this part and the meridian entry of the transport points[輸血歸經] in the first part of the book. However we must not give credit to Wang for work that was done by former generations.

Key Words : Dong-indogyeong(銅人圖經), Wangyuil(王惟一), 'Cheonsoeng Seokgak edition(天聖 石刻本)', Hyeolsudosu(穴腧都數), Sumyeongdanggyeolsik(修明堂訣式), Pichimgugyeol(避鍼灸訣) 'Jeongtong edition(正統本)' 'Geumbu(今附)'

## I. 序 論

北宋 醫官인 王惟一은 經絡腧穴을 교정하여 『銅人腧穴鍼灸圖經』(이하 『銅人圖經』이라 간칭함) 3권을 天聖 4년(1026)에 편찬하였다. 이 책은 송대 침구학 교육의 교본이고 임상에서 취혈의 근거로 삼아 송대 이후 침구학에 대해 깊은 영향을 끼쳤다.

銅人은 인체의 經絡腧穴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모형으로 南宋·周密의 『齊東野語』에는 “잘 제련된 동으로 만들고 장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길의 수혈은 금을 섞은 글씨로 그 옆에 혈명을 적었고, 등 쪽을 닫으면 마치 사람의 전신과 같아진다. 옛날에는

이를 이용하여 의사들의 시험을 치렀다. 그 방법은 동인 바깥 면에 黃蠟을 바르고 속에는 수은을 채웠다. 의생에게 길이를 측정하여 혈에 따라 침을 놓게 하여 혈이 정확하면 침이 들어가 수은이 흘러나오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침이 들어가지 않는 기묘한 기구이다.”<sup>1)</sup>라 하였다. 근래에 출토된 漢代의 經絡을 새

\* 교신저자 : 김기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접수일(2008년 10월 20일), 수정일(200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2일)

1) 周密 撰.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齊東野語·鍼砭(卷14).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긴 木人 이 있었지만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鍼灸銅人이며, 宋代는 침구동인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체포의 경락수혈과 내장의 해부를 학습하고 이것을 의학교시에 이용하여 실제 조작능력을 평가하였다. 송대 鍼灸銅人의 제작은 의학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며 그 영향으로 역사상 여러 차례 침구동인을 重修하였다<sup>2)</sup>.

北宋·天聖시기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할 때에 침구동인 2구를 주조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송이 멸망한 뒤에 행방이 불명 되었고, 다른 1구는明代에 전해졌지만 ‘昏暗而難辨’하여 明·英宗 正統 8년에 ‘仿前重作’하여 宋·天聖시기의 옛 동인과 石刻은 모두 폐기시켰다<sup>3)</sup>.

현재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에 銅人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학자들은 ‘天聖銅人’ 혹은 ‘正統銅人’으로 보고 있다. 이 동인의 내력에 관하여 일본학자들도 다른 의견이 있다. 藤井美保子は “元代 사람이 수선하고 明·正統시기에 다시 주조한 동인이 義和團사변(北清事變 1898~1901년) 후에 일본 군인에 의해 北京太醫院에서 일본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일본 上野國立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sup>4)</sup>고 하였으며, 小曾戶洋은 “東京國立博物館의 장부에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이 동인은 17세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sup>5)</sup>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최근 黃龍祥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sup>6)</sup> 宋代 침구서의 대표적인 醫籍인 『銅人圖經』에 관한 배경, 작자와 서명, 권수와 판본, 기본 내용, 전후차이, 기본구성, 차례, 인용문헌, 후세에 끼친 영향, 오류의 분석 등에 관한 문헌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저작 배경

송대 황제는 의학을 중시하였다.太祖는 開寶연간에 의관인 劉翰 등에게 본초 문헌을 정리할 것을 명하여 唐代 官修本草인 『新修本草』를 기초로 와전된 것을 바로잡고 빠진 것을 보충하여 開寶 6년에 『開寶本草』를 편성하고 다음 해에는 다시 수정하여 차례를 보다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하여 송대 최초로 본초학의 규범으로 삼았다. 宋·太宗도 본래 의학에 관심이 많아 대량의 의서를 소장하였고 의방 1만여 수를 수집하여 太平興國 3년(978)에 의관인 王懷隱 등에게 편집 정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太平興國 6년(981) 12월에 ‘訪求醫書詔’를 반포하여 많은 돈과 벼슬을 걸고 의서를 널리 구함으로써 『太平聖惠方』의 편성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고대 의가는 줄곧 침과 약을 함께 중시하였고 정부가 藥書와 方書를 편수한 후에 鍼灸 ‘明堂’의 정리 작업

p.117. “以精銅爲之，臟腑無一不具。其外腧穴則錯金書穴名于旁，凡背面二器相合，則混然全身。蓋舊都用之以試醫者。其法外塗黃蠟，中實以汞，俾醫工以分析寸，按穴試鍼，中穴則鍼入而汞出，稍差則鍼不可入矣，亦奇巧之器也”

- 2)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共譯.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7. p.562.
- 3) 黃龍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31.
- 4) 藤井美保子. 鍼灸醫學典籍大系(第1卷)·總論·銅人腧穴鍼灸圖經解題.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53[1978]. p.126. 이에 관하여 中國의 黃龍祥은 “현재 日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침구동인의 수혈 분포의 특징이 明·正統시기의 탁본인 『銅人圖經』의 수혈 경위와 서로 부합하여 이 동인과 ‘正統銅人’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銅人圖經』 연구에 이 동인 연구를 출시할 수 없으며, 이는 『銅人圖經』 腧穴 정위에 대한 가장 좋은 注解이다”(『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31.)고 하였다.
- 5) 小曾戶洋은 “山崎次善의 墓志銘에 쓰여 있는 간접적인 기록에 근거하여 이 동인은 山崎次善이 江戶醫學館에 봉직하고 있던 시기 즉 18세기말 寬政연간(1789~1800년)에 제

작되었다”고 하였다(『日本醫學史雜誌』, 1989년 제2기). 이 설은 의문점이 많아 이후 小曾戶洋은 “東京國立博物館의 장부에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이 동인은 17세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고 하였다(『漢方の臨床』, 1994년 제9기). 다만 이 시기 이전에 ‘天聖銅人’ 혹은 ‘正統銅人’이 이미 일본에 유입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믿을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이 동인이 중국의 ‘正統銅人’이라는 주장에 기울게 된다. ‘天聖銅人’ 혹은 ‘正統銅人’은 『銅人圖經』 주혈에 대해 가장 잘된 주해로 『銅人圖經』을 연구하는데 참고로 삼지 않을 수 없는 동인이다.

- 6)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鄧良月,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證治通鑒. 膠南. 青島出版社. 1994.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7. 藤井美保子. 鍼灸醫學典籍大系(第1卷)·總論·銅人腧穴鍼灸圖經解題.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53[1978].

을 반드시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唐代 정부가 여러 차례 수정한 침구경전인 『明堂經』은 이미 없어져 宋·太宗이 조칙을 내려 책을 수집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宋·仁宗이 天聖 연간에 의관인 王惟一에게 鍼灸穴穴 典籍을 편수하게 하여 실전된 『明堂經』을 대체하였다. 이 이전에 『開寶本草』의 편찬 작업이 있었고, 특히 宋·太宗이 대규모로 의서를 징집하여 모은 침구문헌과 王懷隱 등이 『太平聖惠方』을 편찬할 때 이러한 문헌에 대해 초보적인 정리 작업을 함으로써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할 때 채용한 침구문헌은 기본적으로 王懷隱 등이 수집한 침구문헌을 벗어나지 않았고, 『銅人圖經』의 편집체례와 편찬방법도 『開寶本草』를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太平聖惠方·鍼經』은 『銅人圖經』에서 『鍼經』의 원문을 대량으로 인용하였고, 심지어 첫 권에 붙어있는 3쪽의 正, 伏, 側人 經絡圖 인물 조형도 『鍼經』과 상응하는 穴圖로 완전히 같다. 王懷隱이 정리한 『鍼經』은 『孔穴圖經』이라 하고, 王惟一이 정리한 책은 『銅人圖經』이라 명명하여 양자 사이에도 연계가 없지 않다. 단지 王惟一이 나중에 침구동인을 주조한 것은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삼차원 도형으로 『鍼經』의 평면 도형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서명에 “圖經”이라 하였지만 원서 속에 평면적인 수혈도는 다시는 붙이지 않았다.

## 2. 작자와 서명

『銅人圖經』의 작자에 관하여 夏竦의 「序文」에서 ‘王惟一’이라 하였으며, 『宋史·藝文志』, 『通志·藝文略』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郡齋讀書志』에는 ‘王惟德’으로 되어 있다<sup>8)</sup>. 혹은 ‘王惟德’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 혹은 ‘惟一’, ‘惟德’은 형제라 추측하기도 하

고, 작자의 본명은 ‘王惟德’이지만 후에 宋·眞宗을 피휘하여 ‘王惟一’로 개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銅人圖經』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 책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음이 발견되었고, ‘王惟一’은 단지 이 책을 주편하였거나 혹은 심사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편찬에 참가한 사람들의 성명에 대해 기재된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銅人圖經』의 편찬자를 언급할 때에는 ‘王惟一’이라 해둔다. 말하자면 본문에서 ‘王惟一’은 『銅人圖經』을 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지 王惟一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명칭에 관하여 의관 夏竦이 소서를 편성한 후에 「序文」을 지을 때 제목을 「新鑄銅人穴穴鍼灸圖經」이라 하였다<sup>9)</sup>. 당시 鍼灸銅人은 이미 제작을 착수하였기 때문에 書名을 ‘新鑄銅人’이라 하였으며 天聖 石刻의 題名과 『宋史·藝文志』에 실린 서명 모두 이와 같다. 그러나 이 책이 유전하는 과정에서 별명과 간칭이 있었는데, 『銅人腑穴鍼經』(『太醫局諸科程文』), 『銅人鍼經』(『鍼灸集書』, 『循經考穴編』), 『天聖鍼經』(『玉海·藝文藝術』), 王惟一 『明堂經』, 王惟一 『明堂銅人灸經』(『宋史·藝文志』, 『灸膏盲俞穴法』), 『銅人鍼灸圖』(『文獻通考』, 『經籍考』, 『鍼灸聚英：集用書目』) 등이다.

## 3. 권수와 판본

『銅人圖經』의 原刊本은 3권이요 天聖石刻도 3권이다. 권3 아래에 「穴穴都數」<sup>10)</sup>, 「修明堂訣式」<sup>11)</sup>, 「避鍼灸訣」<sup>12)</sup> 3편이 붙어있지만, 권수를 따로 만들지 않아 여전히 原刊 3권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송대 石刻은 명대 초기에 이미 “漫滅耐不完”<sup>13)</sup>하였

7)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卷2)·銅人穴穴鍼灸圖經,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898.

8) 晁公武 撰,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郡齋讀書後志·銅人輸鍼灸圖經三卷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78.

9)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穴穴鍼灸圖經·新鑄銅人穴穴鍼灸圖經序鍼灸名者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68.

10)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穴穴鍼灸圖經·穴穴都數鍼灸名者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207-213.

11)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穴穴鍼灸圖經·修明堂訣式鍼灸名者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213-214.

12)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穴穴鍼灸圖經·避鍼灸訣鍼灸名者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15.

13)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穴穴鍼灸圖經·御制

기 때문에 正統 8년에 이전의 것을 모방하여 다시 새겼다. 송대 原刊本은 金인이 大定 연간에 補注하고 개편하여 다시 간각할 때 5권으로 나누었다. 지금 이 몇몇 판본을 다음과 같다.

### 1) ‘原刊 3卷本’

原刊本은 失傳된지 오래되었으나 원서의 내용은 거의 전문이 北宋 대형 官修 의서인 『聖濟總錄』에 인용되었다. 단지 인용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응하게 정리하였다. 이밖에 宋代 丁德用的 『難經補注』, 金代 閻明廣의 『子午流注鍼經』, 劉完素的 『傷寒直格』, 『素問要旨論』 등에 原刊本 『銅人圖經』의 경맥순행과 病候를 수록하여 『銅人圖經』의 원래 모습을 고찰하는데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다. 또한 南宋 王執中의 『鍼灸資生經』에서 『銅人圖經』의 2, 3권에 나타나는 모든 腧穴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동시에 1권의 내용도 참고하였는데, 여기에서 의거한 판본도 宋刊本이다.

### 2) ‘宋·天聖 石刻本’

宋·天聖 石刻殘碑가 北京에서 모두 6개가 출토되었다. 이 殘碑는 오늘날까지 발견된 宋·天聖 石刻 가운데 가장 온전한 유일한 비석으로 높이는 약 2m이고 폭이 가장 넓은 곳은 0.55m이다<sup>14</sup>). 내용은 「穴腧都數」와 「修明堂訣式」 부분이다. 이 비는 明·正統 碑와는 내용은 물론 서법과 字體가 모두 비슷하며 심지어 잘못된 글자와 俗字까지도 같다. 이는 明·正統 石刻이 宋·天聖 原刻에 충실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 3) ‘明代 石刻과 刊本’

明代 正統 石刻 『銅人圖經』은 없어졌고 현존하는 것은 石刻 탁본 4부로 한 부는 中國中醫研究院에 소장되어 있으며 모두 2책으로 「上卷」, 「中卷」 부분만 있다. 한 부는 中國科學院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모두 4책으로 그 중에 「上卷」, 「中卷」 모두에 페이지

가 빠져있다<sup>15</sup>). 이밖에 2부는 대체로 온전한 것으로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日本宮內廳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고 日本經絡治療研究會에서 영인하여 출판하였다. 다른 한 부는 日本 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에서 영인하여 『鍼灸醫學典籍大系』 총서 제9책<sup>16</sup>에 수록하였다.

### 4) ‘金·大定 5권 補注本’

이 판본은 金代 출판 중심인 平水의 陳氏 책방에서 새겼고 原刊本은 이미 실전되었다. 이전에는 이 판본이 金·大定 丙午(1186)년에 간각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3권에 수록된 『鍼灸避忌太一之圖』의 「自序」를 근거하여 연대를 단정하였다<sup>17</sup>). 이는 平水에 사는 노인이 지은 것으로 陳氏 책방에서 『銅人圖經』을 간각할 때 石刻에 의거하여 전문과 서문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銅人圖經』을 간각한 연대는 1186년보다 늦다. 元代에 이 판본을 근거로 翻刻하였고 현재 臺灣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小曾戶洋이 현행하는 清代 宣統元年에 劉世珩이 영인한 『新刊補注銅人腧穴鍼灸圖經』은 元本에 의거하여 翻刻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sup>18</sup>).

## 4. 기본 내용

원서는 모두 3권이고 각 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上卷」

첫 머리에 正, 伏, 側 3인의 12경맥 및 起止穴圖를 실었고, 다음으로 『靈樞經·經脈篇』에서 12경맥의 내용을 수록하고 각 경의 문자 뒤에 소속된 경혈의 혈명, 부위를 나열하였고, 마지막으로 『難經』의 督, 任

15)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p.187-190.

16)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17)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4.

18)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18.

銅人腧穴鍼灸圖經序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67.

14)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p.192-195.

脈 순행 내용을 기록하고 상응하는 수혈을 나열하였다.

### 2) 「中卷」

첫 머리에 『靈樞』에서 침법을 논한 경문과 鍼灸避忌圖를 수록하고, 이어서 先上後下, 先中央後兩側의 순서에 따라 두면과 軀幹部 수혈의 부위, 자구법 및 주치증을 기술하였다.

### 3) 「下卷」

첫머리에 12경 流注孔穴圖를 싣고 이어서 경에 따라 사지 수혈부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 宋石刻의 「下卷」 끝에 「穴腧都數」, 「修明堂訣式」, 「避鍼灸訣」 3편을 붙였다.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 이전에는 돌에 새길 때 필요에 응하여 증가시킨 것으로 주로 ‘빠진 것을 보충 [補白]’한 것이거나 腧穴索引 작용을 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원문을 조사해 보면 이 3편의 문자적인 의의는 주로 ‘補白’에 있지 않고 송대 석각의 유기적인 조성 부분이다.

그 가운데 「避鍼灸訣」은 「中卷」의 「鍼灸避忌之圖」<sup>19)</sup>에 대한 설명이다. 「穴腧都數」의 수혈부분은 中, 「下卷」의 本文과는 일치하지 않아 수혈의 색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동인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은 먼저 『銅人圖經』에 실린 모든 수혈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혈을 새기는 것은 文本의 자료에 의거해야 하는데, 원서 상권의 수혈은 모두 경에 따라 배열하여 혈을 새기기에는 불편하고 「中卷」, 「下卷」은 腧穴의 내용이 매우 많아 이용하기 불편하다. 더군다나 동인을 주조할 때에 원서 이 부분의 내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365개 수혈의 정위에 따른 간단한 文本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분명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穴腧都數」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탄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 王維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鍼灸避忌之圖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80.

이른바 「穴腧都數」는 수혈 총 숫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 편의 수혈 부분은 원서 「中卷」, 「下卷」에 비해 동인에 새기기가 보다 편리하다. 주의할 점은 「穴腧都數」에 실린 수혈 정위와 『銅人圖經』 「上卷」은 비슷하지만 「中卷」, 「下卷」과는 차이가 상당히 커서 「穴腧都數」를 편성할 때에 「中卷」, 「下卷」은 아직 원고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권에 의거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혹자는 ‘都數’는 상권의 편자가 직접 쓴 것이라 하였다.

## 5. 『銅人圖經』의 전후 차이

明·正統 탁본인 『銅人圖經』 「上卷」, 「中卷」, 「下卷」, 「穴腧都數」 부분의 내용과 체례와 채용한 문헌이 모두 같지는 않다. 이는 이 책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하였을 수 있었고, 게다가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 편찬함으로써 발견할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되지 못한 흔적이 원서 속에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經脈, 經穴의 순서가 다른 예

#### (1) 「上卷」

手太陰→手陽明→手少陰→手太陽→手厥陰→手少陽→足太陰→足陽明→足厥陰→足少陽→足少陰→足太陽  
腎經穴의 차서 : ……大鍾, 照海, 水泉……

#### (2) 「下卷」

手太陰→手陽明→手少陰→手太陽→手厥陰→手少陽→足厥陰→足少陽→足太陰→足陽明→足少陰→足太陽  
腎經穴의 차서 : ……大鍾, 水泉, 照海……

#### (3) 腧穴都數

手太陰→手陽明→手少陰→手太陽→手厥陰→手少陽→足太陰→足陽明→足少陰→足太陽→足厥陰→足少陽

腎經穴 차서 : ……水泉, 大鍾, 照海……

이상에서 경맥의 배열순서가 각기 다른데 그 중에 「上卷」의 배열법은 『千金翼方』에서 나왔다. ‘都數’의 배열법은 手經이 먼저이고 足經을 뒤에 두었고, 手足의 陰經은 三陰, 二陰, 一陰의 차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陽經은 이와 서로 표리가 되는 음경에 따라왔다. 「下卷」의 배열법은 출처가 불상하고 분명한 규율도

알 수 없다.

족부 腎經의 몇몇 혈의 배열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上卷」의 배열법은 『甲乙經』, 『外臺』에서 나왔고, 「下卷」의 배열법은 『千金要方』, 『千金翼方』에서 나왔으며 「穴腧都數」의 배열법은 출처가 미상하다. 이밖에 「穴腧都數」와 「中卷」은 구체적인 혈의 소속 방향의 차이도 매우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 2) 수혈 귀경과 脈氣所發이 다른 예

「臑會」, 「絲竹空」은 『銅人圖經』 「上卷」에서는 모두 手少陽三焦經穴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中卷」에 실린 「臑會」혈은 「手陽明之絡」으로 되어 있어 송 이전의 여러 침구문헌과 같고, 「穴腧都數」에서는 직접 手陽明大腸經에 귀속시켰다. 「上卷」에서 「絲竹空」을 手少陽經에 귀속시켰으나 「中卷」에 실린 「絲竹空」은 「足少陽脈氣所發」로 되어 있어 송 이전의 여러 침구문헌에 기재된 것과 같다.

또한 「上卷」에서 「臑會」혈을 足少陽膽經에 귀속시켰지만 「中卷」에서는 「手少陽脈氣所發」이라 하였다. 五卷本에서는 「足少陽脈氣所發」로 고쳤는데, 이는 후세에 다시 새길 때에 고친 것이다. 『普濟方』에서 인용한 五卷本 『銅人圖經』에서는 이 혈이 「手少陽脈氣所發」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銅人圖經』에서 앞뒤로 나타나는 수혈귀경의 차이를 비교하면 「上卷」의 수혈귀경은 『素問』 注文에 보다 많이 의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도표 1. 과 같다.

腧穴	「上卷」	「中卷」
臑會	手少陽經	手陽明之絡
絲竹空	手少陽經	足少陽脈氣所發
聽會	足少陽經	手少陽脈氣所發
地倉	蹻脈, 足陽明之交會	蹻脈, 手陽明之交會
大椎	三陽, 督脈所生	手足三陽, 督脈之會
中腕	三陽, 任脈之會	手太陽, 少陽, 足陽明所生, 任脈之會
關元	三陰, 任脈之會	足太陰, 少陰, 厥陰三陰, 任脈之會

도표 1. 『銅人圖經』에 있어서 腧穴歸經과 脈氣所發이 다른 사례

## 3) 穴名이 다른 예

「客主人」은 『黃帝明堂經』에서는 「上關」혈의 別名으로 되어 있고, 『銅人圖經』에서는 이 혈 아래의 내용을 『太平聖惠方』 권99 『鍼經』에서 전부 베꼈기 때문에 「客主人」을 正名으로 「上關」을 別名으로 삼았다. 그러나 「上關」혈의 정위를 나타낸 글에서는 여전히 「上關」으로 되어 있지 「客主人」으로 되어 있지 않다. 「穴腧都數」에서는 바로 「上關」으로 되어 있어 통일성이 없다.

「承扶」혈은 송 이전의 문헌에서는 모두 「扶承」으로 되어 있고, 『銅人圖經』에서 「承扶」로 고쳤다.

수혈의 별명 방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中卷」, 「下卷」에 기재된 별명이 「上卷」과 「穴腧都數」보다 많다.

「中卷」, 「下卷」의 수혈 本文에 기재된 수혈의 내용은 「上卷」의 「穴腧歸經」보다 상세하기 때문이다. 「穴腧都數」는 주로 定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혈의 別名을 거의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上卷」에 기재된 수혈의 별명과 「中卷」, 「下卷」이 다르거나 「上卷」에 기재된 별명이 「中卷」, 「下卷」에 실리지 않았다면 이는 의거한 문헌이 달랐기 때문이다. 「迎香」, 「禾膠」, 「神門」, 「衝陽」, 「地倉」, 「幽門」, 「承山」, 「通天」, 「腦戶」, 「天突」 등 10혈은 「上卷」에서는 모두 상응하는 별명을 기재하였지만 「中卷」에는 적혀져 있지 않다. 그 가운데 「神門」, 「衝陽」, 「幽門」, 「通天」혈은 王惟一이 베낀 것에서 빠져있는 것이외에 그 나머지 6혈은 채용한 문헌이 상권과 다르고 수혈 별명의 항목이 빠져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 2.와 같다.

「上卷」	「中卷」, 「下卷」	「都數」
客主人, 一名上關	同上卷	上關
下關, 在上關下	下關, 在客主人下	
下巨虛, 一名下廉, 在上廉下三寸	下廉, 一名下巨虛	下巨虛
上巨虛, 一名上廉	上廉, 一名上巨虛	上巨虛
承扶	扶承(目錄)	同上卷
承漿, 一名天池	一名懸漿	

도표 2. 『銅人圖經』에서 穴名이 다른 예

## 4) 腧穴의 부위가 다른 예

아래 도표 3.에 언급된 수혈부위의 차이는 오기나

판본의 요인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이는 각자가 의거한 문헌이 다르거나 別穴과 뒤섞인 소치이기 때문이다.

腧穴	「上卷」	「中卷」, 「下卷」	「都數」
上脛	在巨闕下一寸五分	在巨闕下一寸. 當一寸五分	同上卷
合谷	在大指歧骨間	在手大指次指歧骨間	同上卷
扶突	在氣舍後一寸五分	在人迎後一寸五分	同上卷
會宗	在腕後三寸空中	在腕後三寸空中一寸	在腕後三寸
乳根	在乳中下一寸四分	在乳下一寸六分	同上卷
大迎	在曲頰前二寸三分	在曲頰前一寸二分	同上卷
中注	在肓俞下一寸	同上卷	肓俞下五分
啞門	在風府後五分, 入髮際五分	在項中央入髮際五分	項髮際宛中
天突	在項結喉下四寸	在結喉下一寸	同上卷
天衝	在耳後入髮際二寸	在耳上如前三寸	同上卷
本神	入髮際	一曰直耳上入髮際四分	入髮際四分
承光	在五處後二寸	在五處後一寸五分	同上卷
迎香	在禾膠上鼻孔旁	在禾膠上一寸, 鼻孔旁五分	禾膠上鼻孔旁五分

도표 3. 『銅人圖經』에 있어 腧穴의 부위가 다른 사례

예를 들어 ‘上脛’혈의 정위는 송 이전의 문헌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巨闕’혈의 定位에서 ‘鳩尾’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銅人圖經』의 「上卷」과 「都數」에서는 『甲乙經』, 『外臺』에 의거하여 “巨闕下一寸五分”<sup>20)</sup>이라 하였으나, 「中卷」에 기

재된 ‘上脛’혈의 내용은 『太平聖惠方』 권99 『鍼經』에서 배겼기 때문에 그 부위가 “巨闕下一寸”<sup>22)</sup>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초록한 사람이 이 설이 부당하다고 보아 또한 注에서 “當作一寸五分”<sup>23)</sup>이라 하였는데, 원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바로 고치지 않았다. 『銅人』에서는 이 혈의 정위에 대해 ‘巨闕下一寸五分’의 견해를 채택하였다. 기타 차이도 모두 각 부분에서 의거한 문헌이 다르기 때문이다. 『銅人圖經』의 「上卷」, 「中卷」, 「下卷」, 「穴腧都數」에 기재된 수혈의 정위에 있어서, 그 내용은 같으나 문자에 차이가 있는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銅人圖經』의 「中卷」의 ‘大顛’혈 아래 注에서 “一本作‘樞’, 今從‘頁’作‘顛’, 餘皆仿此”<sup>24)</sup>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樞’를 ‘顛’자로 고친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논외로 하지만 문자를 밝혀 강조하였다면全书에서 ‘樞’자는 ‘顛’로 고쳐야 한다.

현존하는 明·正統 石刻 本 「中卷」에 있는 ‘樞’자는 1예를 제외하고 모두 ‘顛’로 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 「上卷」에서 ‘顛’로 되어 있는 것이 26례이고 ‘樞’자로 되어 있는 것이 19례이지만, 「穴腧都數」에서는 전부 ‘樞’로 되어 있어 「中卷」의 규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銅人圖經』 石刻의 이 3부분에서 의거한 문헌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각기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6. 기본 구성

고찰을 통하여 『銅人圖經』은 실제로 本文에서 유래하였음을 발견되었고, 注文(按語를 포함), 附文, 附圖 4부분으로 구성된 바를 아래와 같이 고찰하기로 한다.

20)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上)·任脈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48.  
 21)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下卷)·都數腹部『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209.

22)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中卷)·腹部中行凡十五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23.  
 23)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中卷)·腹部中行凡十五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23.  
 24)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背腧部中行凡一十三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87.



### 1) 本文

王惟一이 편찬한 『銅人圖經』은 『外臺秘要』, 『甲乙經』, 『千金要方』 등에 수록된 『黃帝明堂』의 경문과 『太平聖惠方』 권99, 100에 수록된 『鍼經』, 『明堂』 등을 本文으로 삼았고, 그 중에 「上卷」의 경맥에 관한 내용은 『靈樞經』에서 따온 것이고 腧穴의 귀경은 『素問·氣府論』과 王冰注를 주요 문헌으로 삼았다. 「中卷」, 「下卷」의 수혈에 관한 내용은 『外臺·明堂』, 『太平聖惠方』 권99에 실린 「鍼經」을 주체로 삼고 『太平聖惠方』 권100의 「明堂」과 『千金要方』 등의 침구문헌을 아울러 취하였다.

### 2) 注文

注文은 주로 腧穴 및 약간의 인용문 출처를 밝히고, 혈명을 주석하고, 異文을 주석하여 밝혀 보충 설명하고, 편자의 학술관점을 천명한 것 등이다. 현행하는 각종 판본의 『銅人圖經』 가운데 주문은 대부분 大字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注文 앞에는 표식을 나타낸 어떠한 문자가 없어 본문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원서에서의 注文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수혈과 인용문의 출처를 주한 것, 여러 책의 異文을 주석하여 수록한 것, 혈명과 骨名을 주해한 것, 작자의 학술관점을 천명한 것 등이다. 원서의 주문에 대해 모두 감별을 요하며 한편으로 작자의 학술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이 주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문자가 주문인지를 분별해 내어야만 정확히 斷句할 수 있고 정확한 원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3) 附文

附文은 王惟一이 침구의 古驗方에 기초한 것으로, 특히 당시 의가들의 침구임상경험에 근거하여 수혈의 주치증과 침구법의 내용을 총괄하였다. 이러한 문자는 대부분 본문 뒤에 붙어 있거나 본문 속에 끼어 있으며 글 앞에 모두 ‘今附’라 붙였다. 이는 夏竦의 「서문」에 말한 “增古今之救驗”<sup>25)</sup>을 뜻한다. 이 부분

의 내용은 임상경험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 이러한 문자를 조문에 따라 배열하여 비교하면 도표 4.과 같다.

腧穴	附文
頭維	……今附: 治微風, 眼臉瞤動不止, 風泪出.
目窗	……今附: 三度刺, 目大明.
天柱	……今附: 治頸項筋急不得回顧, 頭旋腦痛.
風門	……今附: 若類刺, 泄諸陽熱氣, 背永不發癰疽.
顴交	……新附: 治小兒面瘡久不除, 點烙亦佳.
膻中	……今附: 療膈氣, 嘔吐涎沫, 婦人乳汁少.
氣海	……今附: 氣海者, 是男子生氣之海也. 治臟氣虛憊, 眞氣不足, 一切氣疾久不瘥, 悉皆灸之.
天府	……今附: 刺鼻衄血不止.
合谷	……若婦人妊娠不可刺, 損胎氣.
隱白	……今附: 婦人月事過時不止, 刺之立愈.
太衝	……今附: 凡診大衝脈可決男子病生死.
外丘	……今附: 獺犬所傷毒不出, 發寒熱, 速以三壯, 又可灸所嚙啣之處, 立愈.
大迎	……今附: 風痛面浮腫, 目不得閉, 唇吻瞤動不止, 當鍼之頓愈.
大溪	……今附: 痲痺寒熱, 咳嗽不嗜食, 腹脅痛, 瘦瘠, 手足厥冷.
委中	……今附: 委中者, 血郤也. 熱病汗不出, 足熱厥逆滿, 膝不得屈伸, 取其經血愈.

도표 4. 腧穴에 언급된 『銅人圖經』의 附文

이상 15조의 附文은 ‘合谷’, ‘太衝’ 2조를 제외하곤 모두 수혈주치에 관한 내용이다. 그 중에 당시 의가가 포함되어 있고 아마 王惟一 본인의 침구임상경험도 포함시켜 귀납 총결하였을 것이다. 전대의 경문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附文 형식으로 나타내었는데, 문헌을 정리하는 이러한 방법은 취할 만 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어떤 附文은 글의 끝에 있지 않고 본문 속에 끼어 있어 본문과 서로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인용한 ‘太衝’혈의 ‘今附’와 ‘顴交’혈의 ‘新附’아래에 긴 본문이 있는데 附文으로 볼 수 없다.

25) 裴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卷2)·銅人腧穴鍼灸圖經.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898.

## 7. 체례

『銅人圖經』의 원서에는 「凡例」나 「序例」가 없어 후인이 이 책을 열람하고 연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찰을 통하여 『銅人圖經』에 실린 수혈 부분의 체례를 아래와 같이 귀납시킬 수 있다.

첫째, 전대 수혈문헌에 있는 내용을 本文으로 삼고 새로 증가시킨 내용 앞에 ‘今附’라 붙여 구별하였다.

이는 송대 초기의 『開寶本草』 체례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고대문헌 정리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편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체례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攢竹’혈 끝에 붙어있는 문자<sup>26)</sup>가 ‘目窗’혈의 ‘今附’ 아래의 문자와 매우 비슷<sup>27)</sup>하지만 앞글에는 ‘今附’가 없다. 유사한 문제가 ‘水溝’, ‘委陽’, ‘期門’ 등의 혈에도 나타난다. 『銅人圖經』에서 전대 침구문헌을 인용한 것이 완전히 원문대로 초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開寶本草』와 다른 점이다. 이밖에 『銅人圖經』에서 편자의 注文, 按語 앞에 따로 ‘今注’, ‘今按’과 같이 붙이지 않고 또한 현행본에서는 모두 大字로 배열하여 본문과 형식상으로 구별이 없다. 이러한 점도 『開寶本草』처럼 체계가 엄격하지 못하다.

둘째, 매 혈의 내용을 혈명, 별명, 부위, 脈氣所發, 주치, 자구법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상은 이 책의 일반적인 규율이지만 구체적으로 매 항목마다 체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銅人圖經』에서는 唐代 의가의 문헌을 많이 채용하였고 避諱로 말미암아 원서에서 수혈 주치증에 쓴 글자에서 ‘療’, ‘理’, ‘主’, ‘主療’ 등을 『銅人圖經』에서는 대부분 ‘治’자로 고쳤다. 그러나 ‘臆中’, ‘下關’, ‘大杼’, ‘膏肓俞’, ‘肩髃’, ‘合谷’, ‘列缺’, ‘天樞’, ‘承漿’, ‘前頂’, ‘大椎’, ‘大橫’ 등의 혈에 대한 주치증 앞에 여전히 ‘療’자로 되어 있다.

刺灸法 항목 아래 내용은 인용문헌에 따라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甄權의 『鍼經』에서 인용한 것은 자

법이 상세하여 자침의 깊이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침의 보사와 침자한 후의 금기도 붙였다. 기타 문헌에서 수록한 것이라면 단지 침 몇分寸, 뜸 몇장만 언급하였다. 혹은 침법만 있거나, 구법만 있거나, 먼저 침법을 언급하고 뒤에 구법을 언급하거나, 먼저 구법을 언급하고 뒤에 침법을 언급하는 등 통일되지 못할 뿐더러 오해하기도 쉽다.

또한 甄權의 『鍼經』에서 수혈의 刺灸法을 기재한 후에 대부분 금기법을 배열하였다. 『太平聖惠方』 권 99에 실린 『鍼經』을 집록할 때에 같은 人形圖에서 서로 이웃한 혈의 금기법이 같거나 대체로 같다면 뒤에 있는 혈은 ‘忌如前法’이라 주를 달거나 혹은 ‘忌如前法’ 뒤에 다른 부분을 다시 보태었다. 그러나 『銅人圖經』의 수혈 배열방법은 『鍼經』과 달라, 『鍼經』에서 서로 이웃한 수혈은 『銅人圖經』에서는 같은 부분 가운데 서로 가까이 배열하지 않았고 王惟一도 분석하지 않고 원문에 따라 ‘忌如前法’<sup>28)</sup>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그 의도를 밝혀주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百會’, ‘天突’혈은 『鍼經』의 첫 번째 人形圖에 있고 매우 가까이 배열되어 있다.

‘百會’혈의 금기법은 “忌酒面豬肉魚莽面蒜薺等物”<sup>29)</sup>이고 ‘天突’혈은 “慎如前法及辛酸滑等”<sup>30)</sup>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銅人圖經』에서는 百會穴이 「頭部中行」篇에 있고 天突穴은 「膺臑部中行」篇에 있다. 중간에 많은 혈을 두어 서로 떨어져 있지만 天突穴의 금기법 항목 아래에 여전히 “慎如藥(前)法及辛酸物等”으로 되어 있어 실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확한 방법은 원서에서 ‘百會’혈의 금기법 내용에 있는 ‘及辛酸滑等’이 ‘忌酒面豬肉魚莽面蒜薺及辛酸滑等’으로 되어야 한다<sup>31)</sup>. 마찬가지로 착오가 ‘承光’,

26)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面第二行左右凡一十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84.

27)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偃伏第三行左右凡一十二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82.

28)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偃伏頭部中行凡一十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81. “「中卷」에서 11회 ‘忌如前法’에 관한 논술이 있다”

29)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驗穴鍼灸圖經·銅人驗穴鍼灸圖經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4.

30)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驗穴鍼灸圖經·銅人驗穴鍼灸圖經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4.

31)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驗穴鍼灸圖經·銅人驗穴鍼灸圖經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頭臨泣’, ‘腦空’, ‘頷厭’, ‘懸顛’, ‘水溝’, ‘承漿’, ‘廉泉’, ‘攢竹’, ‘睛明’, ‘腎俞’, ‘秩邊’, ‘鳩尾’, ‘陽溪’ 등의 혈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 그 연유를 모른다면 이해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聖濟總錄』을 편찬한 의관이 『銅人圖經』을 초록할 때에 이 부분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였는데, 이는 실로 부득이한 처리 방법이었다.

## 8. 인용문헌

『銅人圖經』이 전대 문헌에서 인용한 숫자의 다소에 따라 배열하면 『外臺秘要方』, 『太平聖惠方』 권99 『鍼經』, 『靈樞經』, 『甲乙經』, 『素問』 王冰注, 『千金要方』, 『太平聖惠方』 권100 『明堂』의 순서이다. 王惟一이 전대 문헌을 인용한 방식이 여러 가지이고 원문을 직접 수록한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용 중에 출처를 밝힌 서명이 대부분 다른 책에서 옮겨놓은 것이거나 보충 설명한 것이다.

### 1) 『外臺秘要方』

『外臺秘要方』 권39 『明堂』의 수혈부분은 주로 『甲乙經』에서 수록한 것으로 3권본 『黃帝明堂經』에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銅人圖經』에서 인용한 것이 『外臺·明堂』이고 『黃帝明堂』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대에 官이나 개인 서목에 『黃帝明堂經』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 책이 이미 없었거나 매우 보기 드물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銅人圖經』보다 30여 년 앞서 성서된 『太平聖惠方』 권61과 권99의 『鍼經』에 수록된 『明堂經』은 이미 『黃帝明堂經』이 아니어서 宋·太宗이 太平興國 6년에 ‘訪求醫書詔’를 반포하였지만 『黃帝明堂經』을 구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外臺明堂』의 수혈내용과 차서가 『黃帝明堂經』과 완전히 다르고 또한 王燾가 『甲乙經』의 수혈내용을 적록할 때에 잘못을 범한 곳이 적지 않아 이러한 특징도 『銅人圖經』에 나타난다. 양자에 있어서 몇몇 문자와 글자 순서에 특유하게 부합하는 예는 일

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로써 『銅人圖經』에서 『外臺·明堂』과 『黃帝明堂』에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문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外臺·明堂』에서 초록한 것이지 『黃帝明堂』이 아니라고 관정할 수 있다.

### 2) 『聖惠方』~『鍼經』

이 책은 『孔穴圖經』이라고도 하며 『太平聖惠方』 권99권에 나타난다. 이 책과 제100권에 실린 『明堂』은 송대 사람이 집록한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안중에는 『鍼經』의 중요도가 『明堂』보다 높다고 본 것 같다. 송대 침구의학 고서문제를 살펴보면 답안은 대부분 『鍼經』에 의거하였고, 심지어 어떤 고서문제는 『銅人圖經』에 따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답안에서는 여전히 『鍼經』에 의거한 답안이 발견되어 이 책이 송대 침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王惟一이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明堂』을 인용한 것보다 훨씬 많고, 또한 원문을 직접 수록한 것이 분명히 많아 다른 방면에서 이러한 점을 실증하고 있다. 이 책의 성서 연대에 관하여 이전의 학자는 唐代 이전 혹은 당대의 책으로 대부분 보았다.

여러 방면으로 종합하여 고찰하면 이 책은 『太平聖惠方』를 편찬한 송대 의관이 엮어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수많은 당대 의가 특히 당대 침구대가인 甄權의 『鍼經』에서 침구수혈 내용을 수록하여 높은 문헌적인 가치와 임상가치를 지니고 있다.

### 3) 『靈樞經』

『銅人圖經』 卷上에 실린 12경맥 순행, 病候의 내용이 『靈樞經』에 나타나는 것 말고도 『鍼經』, 『脈經』, 『甲乙經』, 『太素』 등에도 나타난다. 『銅人圖經』 卷上이 『靈樞經』에서 베낀 것이지 다른 책에서 베낀 것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宋史·藝文志』에 『黃帝靈樞經』 9권이 실려 있고, 송대 신하가 『素問』을 교정할 때에 『靈樞』가 완비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經脈篇』의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였으며, 조금 뒤에 朱肱의 『活人書』에서도 『靈樞·經脈』 가운데 足六經의 순행과 병후에 관한 문자를 온전히 인용하였다. 王惟一이 『銅人圖經』

』을 편찬할 때보다 일렀다 해도 『靈樞經』이 이미 온 전치 못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가운데 「經脈篇」은 제대로 갖추어져 王氏가 완전히 인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銅人圖經』에서 인용한 책 가운데 『靈樞經』은 언급하였지만 『鍼經』이나 『九卷』은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靈樞經』의 일부 특징적인 문자와 특유한 착오가 『銅人圖經』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행본 『靈樞經』에 기재된 足太陽經 순행에 관한 것에 “別下貫胛, 挾脊肉”<sup>32)</sup> 구절이 있는데, 朱肱의 『活人書』에서 『靈樞經』을 인용한 글과 같다. 여기에서 ‘胛’은 ‘胛’의 잘못이고, ‘挾脊肉’는 옛 注文인 “挾脊肉”으로 본문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sup>33)</sup>. 이 조문의 오자는 『脈經』, 宋本 『甲乙經』, 『太素』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으며 『靈樞經』 특유의 착오이지만 이러한 오자가 『銅人圖經』 『上卷』에 나타난다.

주의할 점은 『銅人圖經』에 수록된 『靈樞經』의 문자 일부가 현행본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王冰 등이 수록한 古本과 같다.

#### 4) 『素問』과 王冰 注文

『銅人圖經』의 편자가 수집한 전대 문헌 가운데 중시한 것은 『素問』과 王冰의 注文으로 어떤 수혈에 대해 여러 의서에서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에는 항상 『素問』과 왕빙의 주를 취하였다. ‘腦戶’, ‘氣衝’혈을 예로 들면 송대 이전 여러 의서에는 모두 ‘禁灸穴’로 기재되어 있으나 王惟一이 『素問』 『刺禁論』에서 禁刺穴 가운데 이 두 혈을 보고 ‘禁刺穴’로 고쳤다. 王冰이 注한 ‘氣府論’에 ‘靈臺’, ‘陽關’<sup>34)</sup>혈이 있지만 송대 사람들은 응용하지 않았다. 王惟一도 수록하였고 일부 문헌에 기재된 수혈은 각 항목의 내용에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眉冲’, ‘督俞’, ‘氣海俞’, ‘關元俞’

등과 같은 것은 경맥의 순행선상에 자리하고 있으나 모두 수록되지 않았다. 국가가 반복한 표준 성격의 문헌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 수혈귀경과 脈氣所發의 내용에 있어서 『素問』注를 보다 많이 따랐고 특히 「上卷」의 수혈귀경이 그렇다. 이러한 것 모두 『銅人圖經』 편자가 전대의 문헌을 채용함에 있어서 뚜렷한 경향성을 띠고 있었음을 반영하였다.

#### 5) 『聖惠方·明堂』

『明堂』은 『鍼經』과 마찬가지로 『太平聖惠方』을 편찬한 宋代 의관이 같이 집록하였으나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할 때에 인용한 『明堂』의 내용은 『鍼經』을 인용한 것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전문을 인용한 것이 매우 적고 기타 의서를 인용할 때 대부분 『明堂』을 인용하여 보충하였다.

상술한 여러 의서 이외에 『銅人圖經』에서는 『甲乙經』의 내용을 채용하였고, 수혈 주치증 항목에서는 『千金要方·孔穴主對法』의 원문을 따왔으나 이 편의 특수한 체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용문에 종종 착오를 범하였다. 甄權의 『鍼經』을 인용한 글은 다른 책에서 베꼈다.

전대 문헌을 채용한 방식에 있어서 『銅人圖經』에서 원문을 직접 수록한 것 이외에 節錄, 合編 등의 방식을 채용한 것이 더욱 많다. 따라서 인용문은 대부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 9. 학술적인 가치와 후세 침구학에 끼친 영향

『銅人圖經』이 편성된 후에 당시 침구교육과 침구임상에 있어서 取穴의 규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송대 이후 내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침구학에 대해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의 학술적인 가치는 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면으로 귀납시킬 수 있다.

#### 1) 腧穴의 歸經

수혈 귀경은 매우 긴 변천 과정을 거쳤다. 王惟一

32) 馬壽 著. 王洪圖, 李硯青 点校. 黃帝內經靈樞經註證發微·經脈第十.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93.

33) 張志聰 著. 鄧林 主編. 黃帝內經靈樞經集注·經脈·分寸歌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17.

34)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氣府論第五十九.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63.

이 완성한 수혈귀경 작업은 주로 수족12경 부분이고任,督脈혈에는 부분적으로 배열하였으며 기타 ‘陰維’, ‘陽維’, ‘陰蹻’, ‘陽蹻’, ‘衝脈’, ‘帶脈’의 혈에는 단독적인 귀경이 없다. 이는 楊上善이 처리한 방법과 비슷하다. 사지부위 수혈의 귀경과 그 배열 순서에 대해서는 『甲乙經』에 의거하였고 『千金要方』, 『千金翼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銅人圖經』의 『上卷』의 본문은 주로 『靈樞』의 『經脈篇』에서 수록하였지만, 12경의 終始 방향, 終始穴 내지는 12경맥의 유주차서는 『經脈篇』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足陽明胃經絡起於厲兌穴, 終於頭維穴”<sup>35)</sup>로 되어 있어 起止 방향과 起止 점 모두 『經脈篇』에 실린 足陽明經과는 다르다. “手少陽三焦經絡起於關衝穴, 終於耳門穴”<sup>36)</sup>로 되어 있어 그 종점이 『靈樞經』과 다르다. 足太陽 경혈의 기지점은 『靈樞經』의 足太陽經 기지점과 일치하지만 중간에 수혈의 배열순서는 足太陽經 순행차서와는 다르다.

아래에서 위로 배혈시킨 법과 족태양 경혈을 한 방향으로 배혈시킨 법을 채용한 것은 주로 기억하기에 편하고 실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맥의 유주차서에 대해 王惟一은 『千金翼方』의 卷26의 배열법을 채용하고 『經脈篇』의 설을 완전히 이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이를 근거하여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할 때에 『靈樞經』을 보지 못했다고 단언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王惟一이 『靈樞經』을 따르지 않고 『千金翼方』의 설을 채용한 것은 당연히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靈樞』의 『經脈篇』을 어떤 수혈 분류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는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인의 경험을 다소나마 참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수혈의 귀경과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한꺼번에 완벽을 기할 수가 없고 착오가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없음을

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聽會’를 足少陽經에 귀속시키고<sup>37)</sup>, ‘天容’을 手太陽經<sup>38)</sup>에 귀속시키는 것 등은 적절치 못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王惟一의 『銅人圖經』의 『上卷』에서 軀幹部 수혈의 귀경은 대부분 『素問』의 王冰 注에 의거한 것이다. 『銅人圖經』의 기타 권은 완전히 王冰의 주에서 배기지 않았기 때문에 『上卷』의 수혈 귀경은 『中卷』에 기재된 “脈氣所發”<sup>39)</sup>의 내용과 『下卷』 뒤에 붙어 있는 “穴脈都數”<sup>40)</sup>의 귀경과는 종종 부합하지 않는 예를 위에서 나타내었다.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王惟一의 엄중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王惟一 『銅人圖經』의 『上卷』의 수혈 귀경은 후세 침구학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서 부정적인 면도 있다.

## 2) 取穴法을 통일시키고 骨度法을 수정

송대 이전의 취혈에는 尺量, 繩量, 同身寸으로 환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同身寸法일지라도 규정이 달라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王惟一은 『太平聖惠方』의 『明堂』에 기재된 同身寸法 즉 “取中指內紋爲一寸”<sup>41)</sup>을 통일된 표준으로 삼았다. 또한 끈은 신축성이 있어 환산하여 취혈하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竹片으로 만든 자를 취혈에 이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동신촌의 방법을 취하고 취혈하는데 쓰는 보조 도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송대 및

35)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銅人腧穴鍼灸圖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6.

36)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銅人腧穴鍼灸圖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6.

37)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上)·足少陽經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77.

38)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上)·手太陽經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73.

39)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中卷』에 11회 ‘忌如前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40)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穴脈都數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p.207-213.

41)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2)·論同身寸中國醫學大成三編(10). 長沙. 岳麓書社. 1994. p.127. “愈今以爲準銅人亦曰取中指內紋爲一寸素問云同”

송대 이후에 同身寸法을 취하는 것은 대부분 이 설에 따랐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 송대 의가인 石藏用은 또한 薄片과 밀초를 먹인 종이로 동신촌을 재는 자를 만들어 취혈의 정확성은 제고시켰다.

骨度는 인체 각 부위의 길이로 나중에 환산하여 취혈하는 근거로 삼았다. 『靈樞』<sup>42)</sup> 『骨度』는 骨度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王惟一이 동인을 주조할 때에 『靈樞·骨度』를 기초하여 골도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또한 일부 새로운 내용을 증가시켰다.

### 3) 新穴을 증보하고 腧穴 主治證을 증가시킴

王惟一은 『甲乙經』에 실린 349혈을 기초하고 또한 전대 문헌에서 골라 다섯 혈을 경혈 속에 넣었다. 즉 '陽關'<sup>42)</sup>, '靈臺'<sup>43)</sup>, '膏肓腧'<sup>44)</sup>, '厥陰腧'<sup>45)</sup>, '青靈'<sup>46)</sup>이다. 그 가운데 '青靈'은 '淸冷淵'의 별명으로 새로운 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甲乙經』<sup>47)</sup>에서 증보시킨 것은 단지 4혈이다.

『黃帝明堂經』이 成書되고 부터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하기까지 이미 1000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역대 의가가 새로운 수혈을 적지 않게 발견하였지만, 『黃帝明堂』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침구문헌을 정리한 사람들은 함부로 1혈도 증가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唐代 孫思邈은 '膏肓腧'에 대해 매우 중시하여 이 혈의 취혈법과 주치병증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 혈이 "無疾不愈"<sup>47)</sup>라 하였지

만 이 혈을 권29 『明堂』<sup>48)</sup> 주혈 속에 넣지 않고 단지 부록에 넣었다. 王燾가 『外臺·明堂』을 편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혈을 부록에 넣었다. 王惟一은 5혈을 경혈에 넣었지만 후인이 경혈을 계속 증보시키는데 시범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혈을 증보시킨 것 이외에 王惟一은 몇몇 수혈의 주치병증도 증가시켰다. 원서 속에 "今附" 조문 아래의 주치증은 王氏가 증보시킨 것이다. 증보시킨 내용은 많지 않지만 결국 전대에 비해 발전이 있었다.

### 4) 전대 문헌에 대한 개정

『銅人圖經』의 주요 내용은 전대 문헌에서 나왔고 새롭게 증가시킨 내용도 많지 않지만 전대 문헌을 그저 간단하게 적록한 것이 아니라 전인의 학설을 계승하되 수혈의 명칭, 부위 및 刺灸法 등의 방면에 있어서 전대 문헌을 고찰하고 개정한 바가 있다. 새로운 것들이 완전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과감하게 탐색하고 옛 설에 구애되지 않는 정신은 바로 학술발전을 촉진시키는 동력이고 후인들을 깨치게 한 작용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것이 『銅人圖經』이 옛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나타내어 스스로 체계를 이룬 중요한 요인인지도 모른다.

『銅人圖經』은 宋代에 침구고시의 근거가 되어 당시 시험답안에서 病案을 분석하는 문제에 『銅人圖經』을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銅人圖經』은 당시 침구임상에 있어서 취혈의 근거가 되어 송대에 관한 대형의서인 『聖濟總錄』 권 191, 192에 기재된 침구수혈과 王執中의 『鍼灸資生經』의 수혈 부위 및 배열법은 전적으로 『銅人圖經』에 의거하였다.

이밖에 송대의 적지 않은 의서에서 침구방 아래 모두 『銅人圖經』에 의거하여 수혈의 부위를 주기하였다. 예를 들어 송대 『普濟本事方』에 실린 침구방 아래에는 모두 『銅人圖經』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수혈의 부위와 주치증을 초록하였다. 송대 이후 침구학에 대한 『銅人圖經』의 영향도 여러 방면이었다. 예를 들어 송대 이후 침구서에서 수혈의 귀경은 모두 『銅人圖經』에 의거하였다. 송대 이후에 나타나는 일부 침

42)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背腧部中行凡一十三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89.  
 43)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背腧部中行凡一十三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87.  
 44)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背腧部第三行左右凡二十八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p.189-190.  
 45)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背腧部第二行左右凡穴四十四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88.  
 46)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手少陰心經左右凡一十八穴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p.199.  
 47)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點校. 備急千金要方(卷30)·雜病第七.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32.

구방은 실제로 『銅人圖經』에서 직접 베낀 것이다. 예를 들어 元代 『衛生寶鑑』에서 寶先生の 『氣元歸類』를 인용하여 ‘半身不遂’, ‘失音不語’를 치료하는 침방은 모두 『銅人圖經』을 초록한 것이다. 그러나 『銅人圖經』이 후세 침구학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는데, 이전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시하지 않았다.

## 10. 오류의 분석

『銅人圖經』에 대해 고금의 학자들은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 계통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속의 여러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 왔다. 宋, 명시기에 교정의 名家가 심지어 이 책을 표준으로 삼아 송대 이전의 ‘明堂’類의古籍을 삭제하거나 고쳤다. 본말이 전도된 이러한 방법은 고대 침구문헌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후인의 연구에 수많은 의혹을 가져오게 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1) 전인의 오류를 계승

『銅人圖經』은 여러 가지 전대 문헌을 채용하였다. 원서에 예로부터 있었던 착오에 대해 왕유일은 고찰을 하지 않고 개정하여 여전히 오류를 답습하였다. 어떤 착오는 전인에게서 나와 원서의 잘못된 곳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지만 왕씨가 수식하여 개편을 거친 후에는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서 원서의 誤文과 『銅人圖經』에서 잘못 답습한 것을 뽑아 정리하여 대조해 보기로 한다.

居髖: [原文] “在長平下八寸三分監骨上陷者中……主腰痛少腹。在腋前兩筋間。主肩前痛與胸相引，臂裏攣急，手不得上舉至肩”<sup>48)</sup>(『外臺』)。

〔銅人圖經〕 “居髖： 在章門下八寸三分監骨上陷中……主腰引少腹痛，肩引胸臂攣急，手臂不得舉而至肩”<sup>49)</sup>

48)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卷39)·膽人膽者肝之腑也兩傍一百四穴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91.

49)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下)·側脇左右凡一十二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96.

啞門: [原文] “在項髮際宛宛中. 主項強舌緩, 口音不能言. 脈旁去上星一寸五分. 灸三壯. 此以瀉諸陽氣熱, 衄, 善噫, 風頭痛, 汗不出, 寒熱, 瘰, 脊強反折, 癩疾頭重”<sup>50)</sup>(『外臺』)。

〔銅人圖經〕 “在項中央入髮際五分宛宛中. 治頸項強, 舌緩不能言, 諸陽熱氣盛, 鼻衄不止, 頭痛, 風汗不出, 寒熱, 風瘰, 脊強反折, 癩疾頭重”<sup>51)</sup>。

浮白: [原文] “在耳後入髮際一寸下曲頰後. 主足緩不收, 痿不能行, 不能言. 寒熱, 喉痺, 咳逆, 吐, 疝積, 胸中滿, 不得喘息, 胸痛, 耳聾嘈嘈無所聞, 頸項癰腫不能言, 及癭, 肩不能舉, 齒牙齲痛”<sup>52)</sup>(『外臺』)。

〔銅人圖經〕 “寒熱, 喉痺, 咳逆痰沫, 疝積, 胸中滿, 不得喘息, 胸痛, 耳聾嘈嘈無所聞, 頸項痛腫及癭氣, 肩背不舉, 悉皆治之”<sup>53)</sup>。

이상 ‘居髖’혈에서 수혈부위와 수혈주치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두 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혈부위의 문자인 ‘在’ 앞에 혈명인 ‘前腋’이 빠져있다. 이러한 착오는 조금만 주의해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王惟一이 수식을 가하여 『銅人圖經』에 초록한 후에는 원래 있었던 착오의 흔적이 가려져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송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침구서에서 그 잘못을 답습하였다.

‘啞門’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수혈부위에서 ‘脈旁去上星一寸五分’ 앞에 ‘五處, 在督’ 4글자가 빠져 있고 五處穴의 내용이 啞門穴 속에 전부 섞여 들어가게 하였다.

‘浮白’혈의 定位에 관한 것에서 ‘下曲頰後’는 ‘天容’혈의 부위인 ‘在耳下曲頰後’ 나머지 글이고 주증의

50)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卷39)·膀胱人膀胱者腎之腑也兩傍一百二十穴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13.

51)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下)·偃伏頭部中行凡一十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82.

52)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卷39)·膽人膽者肝之腑也兩傍一百四穴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90.

53)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下)·側頭部左右凡二十六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83.

‘寒熱’에서 ‘肩不能舉’에 이르는 38자는 『甲乙經』, 『千金要方』, 『醫心方』 등에 의거하면 ‘天容’혈의 주치증으로 王壽가 ‘浮白’혈 속에 잘못 수록하였다.

王惟一은 그 오류를 답습하여 상술한 ‘天容’ 주치증을 ‘浮白’혈 속에 수록하고 ‘下曲頰後’ 4글자를 삭제함으로써 잘못된 흔적을 덮어버렸다. 유사한 착오가 ‘俞府’, ‘清冷淵’, ‘乳根’, ‘石關’, ‘耳門’, ‘兌端’, ‘屋翳’, ‘魂門’, ‘三里’, ‘中清’, ‘尺澤’, ‘通天’, ‘筋縮’, ‘曲垣’, ‘懸鍾’ 등의 혈에서도 나타난다.

## 2) 王惟一이 편집에 잘못을 범한 예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銅人圖經』의 편찬자는 왕유일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아 여기에서는 다만 왕유일을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았다.

### (1) ‘A’穴의 주치증이 ‘B’穴로 잘못된 것

『銅人圖經』에서 俞穴이 서로 섞인 것이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同名穴의 주치증이 서로 섞인 것이고, 둘째는 기타 혈의 주치증이 서로 섞인 것이다.

#### ① ‘腹通谷’이 ‘足通谷’으로 잘못된 예

『銅人圖經』에서 足太陽經의 족부 ‘通谷’혈 아래에 “甄權云：結積留飲，胸滿，食不化”<sup>54)</sup>라 하였다. 이 조문의 주치증은 『千金要方』, 『千金翼方』, 『醫心方』에 나타난다. 『千金翼方』 권27에서 “諸結積留飲囊，胸滿，飲食不消，灸通谷五十壯”<sup>55)</sup>이라 하였고, 『醫心方』 권9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면서 ‘五十壯’ 뒤에 “在幽門下一寸”<sup>56)</sup>으로 적혀있다. 여기에서 ‘通谷’은 복부의 ‘通谷’혈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太平聖惠方』 권99 『鍼經』의 복부 ‘通谷’혈에서도 유사한 병증이 기재되어 있다.

복부의 혈이 흉복부 병증을 주치하는 것이 수혈 주치의 일반규율에 부합한다. 『銅人圖經』에서는 이 병

증을 족부 ‘通谷’혈 아래에 잘못 귀속시켜, 송대 이후 침구서에 대부분 그 오류를 답습하였다. 이밖에 『聖惠方』 권100에 ‘內崑崙’혈(足少陰經穴의 ‘太溪’에 해당)이 실려 있는데, 王惟一의 불찰로 이를 족태양경 ‘崑崙’혈로 잘못 여겼다.

#### ② ‘意舍’, ‘陽綱’, ‘魂門’이 서로 잘못된 예

『銅人圖經』의 ‘陽綱’혈 아래에 “治腹滿脹，大便泄利，小便赤澀，身熱目黃”<sup>57)</sup>이라 하였다. 『甲乙經』, 『外臺·明堂』, 『醫心方』 등 송대 이전 “黃帝明堂”류 침구서에 의하면 이 병증은 ‘意舍’의 주치증으로 되어 있으며, 王惟一은 ‘陽綱’혈에 잘못 수록하였다. ‘陽綱’혈 아래에 수록한 것은 ‘意舍’혈의 주치증이고 ‘陽綱’혈 원래 주치증은 『聖惠方』의 오류를 답습하여 ‘魂門’혈의 주치증에 섞여들어 갔고, ‘魂門’혈 원래 주치증은 또한 『聖惠方』의 오류를 답습하여 ‘意舍’혈 속에 섞여들어 갔다. 이와 같이 『銅人圖經』에서 ‘意舍’, ‘陽綱’, ‘魂門’ 3혈의 주치증이 완전히 서로 뒤섞여버렸다.

이밖에 또한 ‘陰陵泉’의 주치 병증을 ‘地機’혈에 잘못 넣었고, ‘五樞’혈의 주치 병증을 ‘帶脈’에, ‘瘦脈’의 주치증을 ‘顛息’에, ‘胞育’혈의 주치증을 ‘志室’에, ‘漏谷’의 주치증을 ‘三陰交’에, ‘兌端’의 주치증을 ‘正營’에, ‘僕參’의 주치증을 ‘金門’혈에 잘못 혼입하였다.

#### (2) 인용문이 잘못된 예

王惟一이 전대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 원문을 직접 인용한 것 이외에 발췌하거나 개편한 예도 있다. 잘못 발췌하면 斷章하여 뜻을 취하는 폐단이 있고, 개편이 잘못되면 원문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아래에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石門：[原文] “石門……鍼入八分，留三呼，得氣即瀉……灸亦良，日灸二七壯，至一百壯”<sup>58)</sup>(『聖惠』).

[銅人圖經 인용문] “石門……灸亦良，可灸二七壯，至一百壯止”<sup>59)</sup>.

54)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圖經(卷下)·足太陽膀胱經左右凡三十六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206.

55)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等 點校. 千金翼方(卷27)·大腸病第八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p.257.

56) 丹波康賴 撰. 王大鵬, 樊友平, 張曉慧 校注. 醫心方(卷9)·咳嗽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402.

57)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圖經(卷中)·背俞第三行凡二十八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90.

58)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圖經(卷中)·銅人圖經(卷中)·銅人圖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8.



肩井: [原文] “肩井……若婦人懷胎落訖, 覺後微損, 手足弱者, 鍼肩井, 手足立瘥. 若有灼然解鍼者遺鍼, 不解鍼者不可遺鍼, 灸乃勝鍼, 日灸七壯, 至一百罷”<sup>60)</sup>(『聖惠』).

[銅人圖經 인용문] “肩井……若婦人墮胎後, 手足厥逆, 鍼肩井立愈. 若灸更勝鍼, 可灸七壯”<sup>61)</sup>.

石關: [原文] “石關……主瘰, 脊強, 口不可開”<sup>62)</sup>(『外臺』).

[銅人圖經 인용문] “石關……療脊強不開”<sup>63)</sup>.

‘石門’혈에 대하여 『銅人圖經』에서는 灸法만 초록하고 원서에서 침법을 언급한 내용을 수록하지 않아 문장의 뜻이 통하지 않게 하였다. ‘灸亦良’이라 하였다면 앞에 반드시 침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肩井’혈에서 원문 한 구절을 빼고 초록하여 원문의 뜻과는 서로 배치된다. ‘石關’혈에 수록된 것에 달문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王惟一이 전대 문헌을 인용할 때에 달문과 오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 (3) 체례를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을 범한 예

『千金要方』권30에 실린 『孔穴主對法』의 체례는 매우 특수하다. 최초로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方』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침구서에서 모두 『孔穴主對法』의 특수한 체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인용하였다. 王惟一的 『銅人圖經』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래에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孔穴主對法: “溫留, 僕參主癩疾, 吐舌鼓頰, 狂言見

鬼”<sup>64)</sup>.

銅人圖經: “僕參: 治……癩癩, 狂言見鬼”<sup>65)</sup>.

孔穴主對法: “旋機, 鳩尾主喉痺咽腫, 水漿不下”<sup>66)</sup>.

銅人圖經: “鳩尾: 治……喉痺咽腫, 水漿不下”<sup>67)</sup>.

이상 두 조문의 『孔穴主對法』주치증은 이 편의 예에 의하면 각기 ‘溫留’, ‘旋機’혈의 주치 원문인데, 王惟一은 그 예를 이해하지 못하고 ‘僕參’, ‘鳩尾’혈 아래에 잘못 두었다.

### (4) 잘못 삭제한 예

『聖惠方』제99권에 甄權의 『鍼經』 腧穴 灸法을 짐작하였는데, 하루에 뜸을 뜨는 양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과정에 따른 뜸의 총량도 기재하였다. 王惟一은 대부분 이를 하루에 뜨는 양으로 보고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聖惠方』에 실린 ‘關元’혈 구법의 원문에는 ‘日灸三十壯, 至三百止’(이는 매일 30장씩 뜸을 뜨고 10일이 지나 300장을 채웠을 때에는 그친다는 뜻임)라 하였고, ‘水溝’혈의 灸法은 “日灸三壯, 至二百即罷”<sup>68)</sup>하고, ‘陰交’혈은 “日灸三七壯, 灸至七百止”라 하였다<sup>69)</sup>. 이밖에 하루에 뜨는 양을 날이 갈수록 늘리거나 줄이는 다른 정황도 있다. 예를 들어 ‘前頂’혈의 구법에 “日灸二壯, 以漸增至七從三, 總至八十一壯罷”<sup>70)</sup>(첫날 뜸을 2장 뜨고 이후 매일 1장을 가하여 엿새째에 7장까지 이르면 뜸의 장수를 늘리지 않고 매일 7장을 뜨고 15일째에 이르러 81장을

64)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灸·風痺第四.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29.

65)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下)·足太陽膀胱經左右凡三十六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206.

66)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灸·風痺第四.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20.

67)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腹部中行凡一十五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93.

68)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銅人腧穴鍼灸圖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9.

69)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銅人腧穴鍼灸圖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9.

70)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銅人腧穴鍼灸圖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9.

59)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腹部中行凡一十五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94.

60) 王惟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銅人腧穴鍼灸圖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29.

61)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肩膊部左右凡二十六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86.

62)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卷39)·大腸人大腸之腑也兩傍四十二穴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85.

63)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卷中)·腹部二行凡二十二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94.

채우면 그친다는 뜻임)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법에 대해 왕씨는 원문 가운데 뜸의 총량을 삭제하거나 혹은 뜸의 총량을 감소시키거나 원문의 첫 글자인 ‘日’자나 마지막 글자인 ‘止’자를 수록하지 않아 마침내 원문의 본래 뜻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를테면 위에서 언급한 ‘關元’혈의 구법을 “可灸百壯至三百壯止”<sup>71)</sup>로, ‘水溝’혈을 “可灸三壯, 至七壯即罷”<sup>72)</sup>로, ‘陰交’혈을 “可灸百壯止”<sup>73)</sup>로, ‘前頂’혈을 “可灸三壯, 至七七壯即止”<sup>74)</sup>로 고쳤다. 王惟一이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송대 이후 사람들은 이러한 구법의 본래 뜻을 더욱 알기 어려웠다.

(5) 取舍가 부당한 예

[原書] “下關……主牙車脫關, 不得嚼食, 側臥開口取之, 鍼入四分, 與上同法, 灸數亦同”<sup>75)</sup>(『千金翼』).

“下關……灸三壯. 主失欠……口僻. 耳中有乾底聾耳有膿, 不可灸之”<sup>76)</sup>(『外臺』).

[銅人圖經] “下關……療聾耳有膿汁出, 偏風口目喎, 牙車脫白, 其穴側臥閉口取之, 鍼入四分, 得氣即瀉, 禁不可灸……”<sup>77)</sup>

위에 언급된 『銅人圖經』의 이 원문은 『千金翼方』과 『外臺秘要方』의 문자를 종합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外臺』에서 가리킨 것은 금기증인데 王惟一은 주치증으로 오인하여 이 혈의 주치

증에 수록하였다. 이어서 또한 이 혈을 禁灸穴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구법을 신지 않고 ‘禁不可灸’ 4글자를 보태었다. 이밖에 王惟一은 『外臺』“耳門”혈의 금기증을 주치증으로 오인하였는데, 단지 이를 금구혈로 오인하지는 않았다.

이상 몇 가지 방면에서 王惟一이 편찬한 『銅人圖經』의 구체적인 오류를 각기 분석하였다.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전혀 새롭고 또한 매우 복잡한 두 가지 연구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라도 이와 같은 오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가장 주된 왕씨의 오류는 전대 침구문헌에 대한 처리 방법에 있다. 혹자는 『銅人圖經』~『素書』에 대한 전체적인 배열에 있어서(즉 전서의 체례에 있어서) 엄밀하지 못함으로써 전서의 전체적인 수준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송대 이전의 의학문헌 정리방법에 주로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한 醫家 혹은 하나의 문헌을 단독으로 정리하거나 혹은 문헌을 위주로 하여 간혹 같은 문헌에서 약간의 내용을 주를 달아 빠진 것을 보완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백가의 설을 모두 취하고 이를 기초하여 빠진 것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작업이다. 당송시기 본초학 문헌의 정리가 이러한 작업을 전형적으로 대표한다. 王惟一의 방법은 이상 두 가지 경우와 달리 문헌을 정리한 특징은 몇몇 내용은 어떤 책을 주로 의거하였고, 일부 내용은 여러 책의 어떤 부분을 잡다하게 취하여 합쳐서 만들었다. 또한 통일된 체례가 없어 驗穴에 따른 별명, 부위, 자법, 구법의 내용과 배열 차서가 종종 문헌에 따라 나타나는 체례가 다르기 때문에 침법이 상세하거나 혹은 구법의 내용이 상세하거나 혹은 침법의 문자가 앞에 있기도 하고 구법의 문자가 앞에 있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헌을 채용하는 왕씨의 이러한 방식은 침구수혈에 대한 문헌정리에 적합하지 못하다. 어떤 방면에 단지 한 의가의 말만 채용한다면 전대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계승할 수 없고 착오도 면할 수 없다. 수혈의 부위, 주치증, 자구법을 각기 다른 문헌에서 채용한다면 또한 과학적이지 못하다. 王惟一이 관건이 되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71)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腹部中行凡一十五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94.  
 72)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正面部中行凡六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84.  
 73)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腹部中行凡一十五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p.193-194.  
 74)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偃伏頭部中行凡一十六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82.  
 75)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等 點校. 千金翼方(卷26)·舌病第五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p.247.  
 76)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卷39)·胃人胃者脾之腑也兩傍九十二穴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96.  
 77) 王惟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驗穴鍼灸圖經(卷中)·側面部穴左右凡一十六穴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206.

히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서의 체례가 하나같지 않고 앞뒤에 모순이 생겨 송대 이전의 침구수혈 방면에 있어서 연구 성과를 전면적이고 진실 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 Ⅲ. 結論

본문을 통하여 논자는 침구의학사에 있어北宋의 대표적인 침구 전문서인『銅人腧穴鍼灸圖經』에 관한 침구 문헌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銅人圖經』의 작자에 관하여 어떤 곳은 ‘王惟一’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王惟德’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王惟德’은 판본명이고 ‘惟一’은 宋·眞宗의 옛 이름을 避諱하기 위해 이후에 개명한 것이다. 이밖에 원서에 따라 앞뒤가 틀리는 것이 많고 심지어 앞뒤가 모순된 정황으로 볼 때 이 책의 편자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왕유일은 단지 이 책의 주편이거나 혹은 심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2. 宋代 原刊本은 3권이고 宋·天聖 石刻 역시 3권이지만 「下卷」 말미에 따로 「穴腧都數」, 「修明堂訣式」, 「避鍼灸訣」 3편을 붙였다. 이 가운데 「避鍼灸訣」은 원서 卷中の 「鍼灸避忌之圖」를 문자로 설명한 것이고, 「修明堂訣式」은 첫 권 正, 伏, 側 三人圖에서 장부의 형태를 설명한 것이며 동시에 동인을 만드는 데 문헌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穴腧都數」는 동인을 만들 때에 혈을 찌는 문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金代 大定시기 平水書坊의 陳氏가 이를 개편한 후에 다시 5권으로 새겼는데, 그 가운데 제1권과 제2권의 문자는 명대 石刻 拓本과 차이가 현저하여, 아마 참고하였거나 혹은 다른 책에서 직접 취한 것으로 완전히 원서에 의거하지는 않았다. 제3권에서는 鍼灸禁忌에 대하여 石刻 내용을 증입시킨 것이다.

明代에 正統 石刻에 의거하여 3권의 『銅人圖經』 木刻本을 새겼고, 여러 종의 重刻本이 있었는데 각본의 내용은 대체로 같지만 원문의 차서는 모두 같지 않다. 여러 각도로 분석하자면 原刊本은 明·正統 이

후에 새겼다.

3. 『銅人圖經』의 수혈내용은 주로 『外臺』 明堂, 『太平聖惠方』 鍼經, 『靈樞經』, 『素問』 王冰注, 『千金要方』 鍼灸 등에서 따왔고, 王惟一이 증가시킨 내용은 많지 않다. 그러나 王氏가 전대 문헌을 인용할 때에 원문을 초록한 것이 매우 적고 일부 고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출처를 나타내지 않았다.

4. 王惟一이 문헌의 채택과 고증에 대해 빠지고 오류를 범한 곳이 적지 않은 잘못은 주로 두 방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왕씨가 전대 문헌의 착오를 답습하여 고치지 않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인의 문헌을 채용할 때에 체례를 알지 못하였거나 글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5. 王惟一이 새롭게 증가시킨 내용은 원서의 ‘新附’(新附) 아래와 소량의 注文, 按語에 주로 나타난다. 왕씨의 학술사상과 학술 업적을 연구하는 데에는 주로 이 부분의 내용과 卷上의 腧穴歸經에 의거해야 한다.

### Ⅳ. 參考文獻

<단행본>

1.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898.
2. 丹波康賴 撰. 王大鵬, 樊友平, 張曉慧 校注. 醫心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402.
3. 藤井美保子. 鍼灸醫學典籍大系. 東京. 出版科學綜合研究所. 昭和53[1978], p.126.
4. 廖育群 著.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共譯.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7. p.562.
5. 馬蒞 著. 王洪圖, 李硯青 点校.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93.
6.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校.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20, 429, 432.
7.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等 點校. 千金翼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p.247, 257.

8.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2006. p.985, 990, 991, 996, 1013.
9.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63.
10. 王維一 著. 日本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銅人腧穴鍼灸圖經. 鍼灸醫學典籍大系(第9).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48, 123, 173, 177, 181, 182, 183, 184, 186, 187, 188, 189, 190, 191, 193, 194, 196, 199, 206, 209. pp.189-190, 193-194, 207-213.
11. 王維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67, 168, 180, 215, 217, 218, 224, 226, 228, 229. pp.207-213, 213-214.
12.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 中國醫學大成三編(10). 長沙. 岳麓書社. 1994. p.127.
13. 張志聰 著. 鄭林 主編. 黃帝內經靈樞集注.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17.
14. 晁公武 撰.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郡齋讀書後志.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78.
15. 周密 撰.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齊東野語. 中國基本古籍庫(卷14). 北京. 黃山書社. 2004. p.117.
16.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4, pp.180-190, 192-195.